

상시조사·관리 체계 구축... 농지종합관리기구 역할 수행

농지은행관리원 오늘 출범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사업 역할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이하 공사)는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치했으며, 올해 예산(농지관리기부금 포함) 48억원을 편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통해 공사는 기존의 농지은행 사업 수행 뿐만 아니라, 농지 상시조사·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농지관리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농지종합관리기구로

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 종합정보 제공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 농지 이용·전용 현황조사, 농업진흥지역 및 유휴농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농지 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면적과 생산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겨울 사료작물을 진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겨울 사료작물 생산량 올리려면?

눌러주기·배수로 정비 등 봄철 생육관리 철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달 리안라이그라스(IRG), 청보리, 호밀 등 겨울 사료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웃거름 주기, 눌러주기(진압), 배수로(물 빼는 길) 정비 등 봄철 생육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주요 겨울 사료작물 재배지 88지점을 대상으로 생육조사 한 결과, 평균적으로 자란 상태는 양호했지만 눌러주기와 배수로를 만들지 않은 농가가 많아 월동 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10~12월 사이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1도(°C) 높은 8.4도(°C)를 기록함에 따라 10월 초 잦은 비로 과잉이 늦어진 지역에서도 생육이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 88

지점 가운데 57%는 배수로를 만들지 않았고, 68%는 눌러주기를 하지 않아 봄철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저온 피해가 우려되며 배수로 정비와 눌러주기 등 봄철(2~3월)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 사료작물은 봄철 생육관리로 면적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얼었던 땅이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하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눌러주기와 배수로 정비는 땅이 질척이지 않은 시기에 기계작업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생육 특성상 뿌리가 땅속으로 깊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눌러줘야 한다. 눌러주기 작업은 서릿발로 땅이 부풀어 올라 밑둥이 뜰까 우려되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고 생산량을 15% 이상 높이는 효과가 있다.

웃거름은 일평균 기온이 5~6도 이상 유지될 무렵에 준다. 중부지역의 경우 3월 상순, 남부지역은 2월 중순이 적기다. 웃거름 시기가 빠르면 비료 이용 효율이 감소하고, 늦어지면 생육이 늦어져 생산량이 감소하며, 수확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웃거름으로 주는 요소 비료량은 헤타르(ha)당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11포(20kg), 청보리와 호밀은 6포(12kg) 정도가 알맞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천동원 과장은 "겨울을 난 사료작물의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눌러주기와 배수로 정비 등 관리가 소홀하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북 농식품 창업 활성화

바이오진흥원, '올 창업성장 지원사업' 지속 추진 5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최대 2000만원 규모 지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김동수 원장)은 전북도의 지원으로 전북 농식품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2022년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창업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의 아이템을 가시화하고, 초기 창업기업에는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창업관련 전주지역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 관련 예비창업자 및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시제품제작, 마케팅 및 홍보 등 최대 2,000만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광고 및 흡소핀 입점 등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경우 창업기업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추가 확보 노력과 함께 더 많은 기업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 진단, 컨설팅, 연계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생존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r.or.kr) 공고를 참조하여 3월 18일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진흥원 창업보육팀(063-210-6561)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부청은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4일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8개단) 및 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88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

능훈련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요령, 응급처치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이행도 진행된다.

권장현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민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코로나19 검사키트

민감도 97.8% 확보

전북대병원 김달식 교수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팀은 타액기반 신속항원진단검사키트의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6일 이내의 환자군에서 민감도 97.8%, 특이도 100%의 탁월한 결과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팀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김두운 교수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권오섭 박사팀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했다. 이 연구팀은 작두콩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이 함유된 가글을 개발했다.

가글에 함유된 작두콩 추출물은 구강 내 세포의 수용체에 강하게 붙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서 고농도로 채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분으로 이를 신속항원진단검사키트에 적용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진단방법으로서 비인두도말-PCR 검사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검사 시 환자의 고통과 불쾌감, 의료인력 부족, 검사시간,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속항원 검사키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낮은 민감도가 한계이다.

높은 민감도를 확인한 이번 가글 타액기반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실시간 현장 검사에 적용할 수 있고 5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 및 대량선별검사에 효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문건설사업자 생존권 보장해야”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쉼기대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공동으로 대선후보를 비롯한 국회와 정책당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 쉼기대회'를 1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쉼기대회에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모아 전문건설건설업역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붕괴된 전문건설 업역 복원과 건설시장 정상화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존폐 위기에

놓은 전문건설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건설산업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면서 "허위 중개채택 건설산업에서 전문건설사업자들은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리한 건설산업정책 추진과 사업규제로 현재 전문건설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쉼기대회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회별로 각 시청과 도청 앞에서 시위·집회를 진행하면서, 대선 전까지 시·군·구 각 지역별 주요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